

2019 서순실 심방 본풀이 채록

삼공본풀이

삼공본풀이>들어가는 말미
삼공안당주년국님~, 난산국입네다예~.

삼공본풀이>본풀이

옛날 옛적 강이영성이서불~, 홍문수천 너실부인 삽데다. 옷상식은¹⁾ 강이영성이서불이 살고, 알상식은²⁾ 홍문수천너실부인님이 삽데다. 농수를 지으난 흉년(凶年)이 들었구나. 밥 빌어당 죽 썬³⁾ 먹고 구명도식(求命圖食) 못허난~, 흐를날은 강이영성이서불은 알옛녁에 풍년(豐年)이나 들어서카부덴⁴⁾ 알옛녁더레 네렸구나~. 알옛녁 홍문수천너실부인님도 흉년 드난 우잇녁에나 풍년 들어서카부덴 우잇녁이더레 얻어먹으레 가단 보난~, 삼도전 세 커리에서⁵⁾ 만났구나. 만났

이 말 저 말 허단 보난,

“아지방은 누게파?”
“나는 옷상식 강이영성이서불이우다.”
“난 알상식에 홍문수천너실부인님이우다. 무사⁶⁾ 이디?? 지기⁷⁾ 읍데가?”⁸⁾
“알옛녁에 흉년 들언 우잇녁이더레 얻어먹으레 감수다.”
“나도 우잇녁에 흉년 들언 알옛녁이더레 감수다.”
“아이고~ 우리 혼 팔저(八字) 혼 사주(四柱)로구나 읍서.”

홀목 심은 게⁹⁾ 오꼳 정이 들었구나~.¹⁰⁾ 홀목 심영~ 얻어먹으레 덩기단¹¹⁾ 보난에 부베간(夫婦間)을¹²⁾ 정헤였구나. 찬물 혼 사발 떠 놓안 부베간 인연(因緣)으로 사는 것이 아기 베었구나~. 놀이 집 헛간에서 아긴 나난 동네 사름이,

“아이고 귀헌 애기 낳았구나.”

은그릇에 밥을 떠다 주난 이 아긴~, 은장아기로 이름 지왔구나. 은장아기덜은 홀목 심언 얻어먹으레 덩기단 보난~, 따신¹³⁾ 아긴 베었구나. 놀이 집 헛간에서 애긴 나난 이번도 톨 낳구나.

“아이고 이 애기덜~.”

동네 사름들이 늦그릇에 밥을 떠다 주난 늦장아기로 이름 지왔구나~. 톨 성제(兄弟)¹⁴⁾ 홀목

1) 옷상식은: 가문장아기 부신명 또는 그 출생지 윗마을은.
2) 알상식은: 가문장아기 모신명 또는 그 출생지 아랫마을은.
3) 썬: 끓여.
4) 들어서카부덴: 들었을까 봐.
5) 삼도전 세 커리에서: 세 거릿길에서.
6) 무사: 왜.
7) 이디?? 지: 여기까지.
8) 읍데가: 왔습니까.
9) 홀목 심은 게: 손목 잡은 것이.
10) 정이 오꼳 들었구나: 정이 어느새 들었구나.
11) 덩기단: 다니다가.
12) 부베간을: 부부사이를.
13) 따신: 다시는.
14) 홀목

심언 땡기단 보난, 또신 애긴 베언 난 건 보난 또시 툇이로구나. 이 아기라근에 남박세기에¹⁵⁾ 밥을 떠 단 주난 가문장애기로 이름 지은 게 가문장애긴 나난애~, 흐를 이틀 살림이 폐와지어 간다.¹⁶⁾ 엇인¹⁷⁾ 곡석(穀食)이 나와 간다~. 엇인 밧이¹⁸⁾ 나와 간다. 밧디 농스(農事) 지언 허단 보난 천하거부제(天下巨富者) 잘 살았구나.

흐를날은 비가 어실어실¹⁹⁾ 오라 가난 강이영성이서불, 흥문수천너실부인,

“야~ 큰년아, 셋년아,²⁰⁾ 족은년아,²¹⁾ 이레 오라.”²²⁾

오란 앓았구나.²³⁾

“큰년아, 나 툇애기야, 은장아기야, 닌 누게 덕(德)에 살았디?”²⁴⁾

“하나님도 덕이우다.²⁵⁾ 지에님도 덕이우다. 아버지, 어머니 덕이우다~.”

“아이고 은장아기 나 툇 착허다. 너 방으로 들어가라~. 나 툇애기야 늦장아기, 이레 오라~. 닌 누게 덕에 살았시니?”

“하나님도 덕이우다. 지에님도 덕이우다. 아버지도 덕이우다. 어머니 덕이우다~.”

“아이고 나 툇 착허다. 늦장아기야, 니 방으로 들어가라.”

족은톨애기 불러단,

“가문장아기야, 닌 누게 덕에 살았디?”

“하나님도 덕이우다. 지에님도 덕이우다. 아버지도 덕이우다. 어머니도 덕이우다만은 나 뱃뚝²⁶⁾ 알에 선 7뚝으로²⁷⁾ 살았수다.”

“아이고 요년, 쟁긴 년 흐루 세 떼 밥 뽕끄랭이 맥이명²⁸⁾ 살단 보난 베포롱 알에 선 7뚝이 이 거 무신 말이넌 흐저 나고가라~.”²⁹⁾

네쫓아부난, 먼 올레³⁰⁾ 나고간다.

“큰년아~, 가문장아기 어마니나 가시니³¹⁾ 먼 올레 강 보렌.”

허난~, 은장아기 먼 올레 나간 몰팡돌에³²⁾ 상³³⁾ 곤는 말이,

“아이고 가문장아기야, 흐적 도망가라.³⁴⁾ 아버지, 어머니 몽둥이로 느³⁵⁾ 떼리레 오람덴.”

골았구나.³⁶⁾ 이 말을 들언 가명 허는 말이,

14) 툇 성제: 여형제 자매(姉妹)를 말함.

15) 남박세기에: 나무바가지에.

16) 폐와지어 간다: 퍼져간다.

17) 엇인: 없는.

18) 밧이: 밧이.

19) 어실어실: 비 따위가 부슬부슬 오는 모양.

20) 셋년아: 둘째 년아.

21) 족은년아: 막내 년아.

22) 이레 오라: 이리로 오라.

23) 앓았구나: 앓았구나.

24) 살았디: 살고 있느냐.

25) 덕이우다: 덕입니다.

26) 베포롱: 배꼽.

27) 선 7뚝으로: 여자의 성기를 뜻함.

28) 뽕끄랭이 맥이명: 배가 뽕뽕하게 먹이며. ‘뽕끄랑-’이 기본형이고 ‘뽕끄랭-’은 된말.

29) 흐저 나고가라: 빨리 나가거라.

30) 먼 올레: 거릿길 쪽에서 집으로 드나드는 골목길.

31) 어마니나 가시니: 얼마만큼이나 갔는지.

32) 몰팡돌에: 하마석(下馬石)에. 노뚝돌에.

33) 상: 서서.

34) 흐적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35) 느: 너.

“우리 늦장언니랑, 은장언니랑 저 알에 내려 사건 청주쟁이, 흑주쟁이³⁷⁾ 몸으로 환싱(幻生) 협서~.”

은장아기, 늦장아기 물팡돌에 네리난 주녕이 몸에 환생 허엿구나에~. 아방 어멍이,

“늦장아기야, 느네 큰성도 아니 오고 훈적 간 보라. 족은년 가문장아기 어마꿈이나³⁸⁾ 가시 니?”

이번은 걸름³⁹⁾ 우터레⁴⁰⁾ 간 곤는 말이,

“가문장아기야, 훈적 도망가라. 아바지, 어머니 느 떼리레 몽둥이 들런 오람져.”

“우리 늦장언니랑 저 걸름 알에 내려 사건 굶병이 몸으로 환싱허렌.”

헤엿구나. 늦장아기 네리난 굶병이 몸에 환싱허엿구나. 늦장아기 굶병이 몸에 환싱허난 은 장아기, 늦장아기, 가문장아기 간 곳 엇이난,

어느 날 갑자기 강이영성이서불 남답법답(南畚北畚) 너른 전답(田畚)~ 간 곳디 엇고~, 흐를 아침에 배가 고파 간다. 겁질에⁴¹⁾ 배고판 덩기단 지방 턱에⁴²⁾ 걸리난 앞눈이 어둑엿구나~. 앞 눈이 어둑언~.

가문장아기 가명, 가명 헤는 열락서산(日落西山)에 다 지어 간다. 가단 보난 마 파는 소리가 우르릉 쿵쿵, 우르릉 쿵쿵 나난 마 파는 디 갖구나.

“아이고 어딜 가민 인가처(人家處)나 잇우과?”

큰마통이 곤는 말이,

“나 마 파는디 정신 엇인디 나 몰른덴~.”

후욕노욕(詬辱怒辱) 허엿구나~. 나왓구나. 가단 보난 우르릉 쿵쿵, 우르릉 쿵쿵 또 마 파는 디가 잇엿구나. 셋마통이 마 파는 디 간,

“어디 가민 인가처(人家處)나 잇우과?”

후욕누욕(詬辱怒辱) 헨다. 가단 보난 또시 마 파는 디가 잇엿구나. 족은마통이안티 갖구나.

“갈 길은 멀고 헤는 열락서산(日落西山)에 다 지난 깊은 밤이 뉘엄수다. 어디 인가처(人家處)나 잇우겐?”

허난, 족은마통이 곤는 말이,

“요디⁴³⁾ 가당 볍서. 피조리 초막살이⁴⁴⁾ 잇읍네다.”

아닌 게 아니라 가단 보난 피조리 초막살이 잇엿구나.

“주인 잇건 나그네 무서⁴⁵⁾ 볍서~.”

“아이고 어디랑 주인 자고 어디랑 나그네 잡네까? 우리 큰마통이, 셋마통이, 족은마통이 마 팡 오락 난데없는 사람이 집이 들어 낫덴 후욕노욕 허민 안뵈네다. 훈적 갑센.”

허난,

“난 딛 사람⁴⁶⁾ 집을 지엄 납네까? 밧을 지엄 납네까? 정제⁴⁷⁾ 구석이라도 빌려 줍서.”

36) 곶앗구나: 말했구나.

37) 청주쟁이 흑주쟁이: 청지네 흑지네.

38) 어마꿈이나: 얼마꿈이나.

39) 걸름: 거름.

40) 우터레: 위에.

41) 겁질에: 겁결에.

42) 지방 턱에 문지방 턱에.

43) 요디: 여기.

44) 피조리 초막살이: 매우 작고 형편이 안 된 초가집 막살이.

45) 무서: 맏어.

46) 난 딛 사람: 길을 나서 다니는 사람.

하도 불쌍해였구나. 정제 구석 빌려 주었구나.

흐끔 잇이난⁴⁸⁾ 우르릉 쿵쿵, 우르릉 쿵쿵~ 큰마통이가 마 판 들어오란 정제에 보난 난데없는 여자가 앓이난 어멍안티 후욕노욕(詬辱怒辱) 헤여간다. 셋마통이도 들어오란 어멍안티 후욕 누욕 한다. 작은마통인 보난,

‘인척이 보아난⁴⁹⁾ 여자로구나.’

안으로 들어간다.

큰마통이 마 판 오란 마를 숲안⁵⁰⁾ 한복판은 자기가 먹고, 우이 머린 어멍 주고, 콩지는 저가문장아기 주었구나. 셋마통이도 마 판 오란 마를 숲안 가운데 이녁⁵¹⁾ 먹고, 콩지 꼴렝인 어멍 주었구나. 작은마통이 마판 오란 마를 숲안 어멍은 한복판 주고, 이녁 콩지 먹고, 어서 가문장아기 머릴 주었구나.

가문장아기도 밥 흔 상을 출런⁵²⁾ 안에 들어 간,

“큰마통이 이 밥 먹읍서.”

“우리 조상 떼부떠 아버지, 어머니 떼부떠 아니 먹어난 밥 안 먹음네다.”

“셋마통이 이 밥 먹읍서.”

“우리 큰성님도 안 먹어난 밥 나도 안 먹음네다.”

“작은마통이 밥 먹읍센.”

허난, 밥 수까락에 밥을 거런 후후 불명 먹어 가난, 큰마통이도 꼴각꼴각 먹구정⁵³⁾ 헤였구나. 셋마통이도 춤만⁵⁴⁾ 꼴각꼴각 먹구정 허였구나.

“흔번 먹어 보낀 흐끔만 드렌.”

허난, 손바닥더레 노난 호~ 불명 먹었구나~. 깊은 밤인 뒤편 즘을 자젠 허난, 큰마통이 방에 들어 가 문을 똑똑 두드리난, 눈도 아니 걸어 뜬다. 셋마통이 방에 들어 간,

“이 문 올센.”

문을 똑똑 두드리난 눈도 아니 뜬다~. 작은마통이 방에 들어 가난 문을 올았구나. 서른으릅 닛바디⁵⁵⁾ 들런 웃음 웃었구나. 흔 이불자리에 누었구나.

뒗날 아척은⁵⁶⁾ 큰마통이 마 파는 딘⁵⁷⁾ 간 보난 뭇똥만 미삭허고,⁵⁸⁾ 셋마통이 마 판 디 간 보난 쉼똥만 미삭허고, 작은마통이 마 판 딘 간 보난 금이여, 은이여 잇었구나. 그 걸 좇어단 쑤난⁵⁹⁾ 남답법답, 너린 전답, 유기전답을 천하거부제(天下巨富者)로 잘 살았구나.

흐를날은 가문장아기가 작은마통이안티 곤는 말이,

“오늘부터 백일잔치 헤여 보게마썸.”

“어서 기영 허렌.”⁶⁰⁾

47) 정제: 부엌.

48) 흐끔 잇이난: 조금 있으니.

49) 인척이 보아난: 일찍이 보았던. 아까 보았던.

50) 숲안: 삶아서.

51) 이녁: 자기.

52) 출런: 차려서.

53) 먹구정: 먹고 싶어.

54) 춤만: 침만.

55) 닛바디: 잇바디(齒列).

56) 뒗날 아척은: 뒗날 아침은.

57) 딘: 곳에서.

58) 미삭허고: 한 가득 하고 한 데 너무 많이 모아지거나 여기저기 널려져 어지러운 상황.

59) 쑤난: 파니깐.

60) 기영 허렌: 그렇게 하라고.

허난, 우리나라 방방곡곡(坊坊曲曲)에 앞는 어둑은 사름들은 다 오렌 걸인⁶¹⁾ 잔친 헤염덴 강이영성이서불, 흥문수천너실부인도 소식을 들엇구나.

“옵서. 낭군님아 우리도 강 보게.”

“우리 어둑은 눈에 어떻게연 가?”

“경 해도⁶²⁾ 옵서. 강 보게~.”

너실부인은 지팽이는 앞이 심고, 강이영성은 뒤에 지팽이 짚어 앓안 소식 들으멍, 들으멍 가문장아기 사는 집이 갖구나. 가문장아기 먼 올레 들어오는 건 보난 우리 아방, 우리 어멍이 들어오람구나.

“늦인덕정하남야, 저 할망, 하르방 봐지건들랑 우으로⁶³⁾ 주당 알로⁶⁴⁾ 강 끊어 불고, 알로 강 주당 우으로 강 끊어 불고, 가운데 주당 알로 끊어불렌.”

허난,

이디 강 앓아도 안 주고, 저 디 강 앓아도 안 주난 강이영성이서불, 흥문수천너실부인,

“옵서. 가게. 우린 여기서도 못 얻어먹을 팔자(八字)가 닳우우다.”

일어사젠⁶⁵⁾ 허난, 가문장아기 안성노기(安城鑰器), 도용칠반상(統營漆板床) 출려다 놓안,

“요레 앓입서.”⁶⁶⁾

밥 흔 상을 놓앗구나.

“요 밥을 먹읍센.”

헤난 첫 수꾸락에 목이 탁 메엇구나.

“할으바지, 할마님 옛말이나⁶⁷⁾ 곱아 봅서.”⁶⁸⁾

“난 옛말도 모릅네다.”

“본말이나⁶⁹⁾ 곱아 봅서.”

“본말도 모릅네다.”

“살아온 정네(情禮) 생각 허멍 곱아봅서~.”

<놀레>

오널~ 오널~ 오널이라에~

날도~ 종양~ 오늘이랑~

들도 종양~ 오늘이랑~

성도 얼마가실선가

옛날~이랑~ 옛적에~

웃상식은 강이영성~이서불이~

살읍데다

알상식은 흥문수천~너실부인

부베간은 멧언 사난

61) 걸인: 거지.

62) 경 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63) 우으로: 위로.

64) 알로: 아래로.

65) 일어사젠: 일어서려고.

66) 앓입서: 앉으세요.

67) 옛말이나: 옛말. 여기서는 ‘살아온 내력’을 의미함.

68) 곱아 봅서: 말해 보십시오.

69) 본말이나: 보고 들은 말이나.

큰똥아긴 솟아난다
 은장아기~ 이름 지웁고
 셋똥아긴 솟아나니
 늦장아기 이름 지웁고
 족은똥아긴 솟아나난
 가문장아기~ 이름지완
 천하거부제(天下巨富者) 잘 살았구나
 흐를날은~ 아기들 불령
 큰똥아가 너는 누게 덕에
 먹고 입고 행공발신(行動發身) 허엿느냐
 하나님도~ 덕입네다
 부모님도 덕입네다
 셋똥아기~ 누게 덕에
 먹고 입고 행공발신 허엿느냐
 아버지~ 덕입네다
 족은똥아긴 베포롱⁷⁰⁾ 알에 선 7못은⁷¹⁾ 살았수다
 가문장아기~ 쫓겨나니
 큰마통이 셋마통이 족은마통이~
 만나건

천하거부제(天下巨富者)로 잘 살았수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가문장아깁네다~. 아버지 나 이 술 한 잔 받았 어서 먹읍서~.”

엄뜻 허난,

“아이고 나 딸이여.”

아버지, 어머니 앞눈 어둑엇단 텃구나.

나님 7쁜 전상,⁷²⁾ 드님 7쁜 전상, 손부산이 전상, 글 흐기도 전상, 활 흐기도 전상, 농스
 지기 전상이로구나. 물질흐기 전상, 심방질흐기 전상이여~. 만상이여~. 전상 없는 일이 잇습네
 까. 악히고 독히고 모진 전상이랑 천지왕 골목더레 네놀리져~. 청죽독에 청스룩도 네놀리자.
 탁죽독에 흑스룩도 네놀리자. 소주독에라건 백스룩 네놀리자~. 머리 아픈 전상, 눈 아픈 전상,
 코 아프고, 입 아프고, 누단 어깨 청비게, 웬 어깨 흑비게,⁷³⁾ 오장육부 삼백 스혈 스테에 아프
 는 전상, 술 먹연 광질흐는⁷⁴⁾ 전상, 천지왕 골목더레~ 네놀리자.

어질고 순한 전상이랑 먹을연, 입을연 큰굿 전세남 네올 전상이라~. 연양당주더레 네놀리고
 스가(私家)집이 굿 헤나민 마을마다 부제집으로 네놀리고, 심방집이는 마을마다 큰심방집으로
 남자 심방 집은 황수(行首)집으로 김씨나, 한씨민 김황수 집이, 한황수 집으로 네놀리젠 하고,
 여자 심방덜은 강씨나, 고씨나, 김씨 됴민 강택이 집으로 네놀리자. 안택이 집으로 네놀리자.
 허는 법입네다.

70) 베포롱: 배꼽.

71) 선 7못은: 여자의 성기를 뜻함.

72) 전상: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

73) 누단 어깨 청비게 웬 어깨 흑비게: 광증이 들 때 빙의되는 순간의 느낌을 표현하는 말.

74) 광질흐는: 미친 짓 하는.

수가집에 마을 도청(都廳)곳을⁷⁵⁾ 훑 때는 도청 앞마당으로 네놀리자. 관덕정(觀德亭) 마당으로 네놀리자. 시청(市廳)마당으로 네놀리자. 읍면동리사무소로 네놀리는 거고, 개인집은⁷⁶⁾ 부제집이라~. 목은성은⁷⁷⁾ 안판관 집으로 네놀리자. 화북(禾北)은 허자수 집으로 네놀리자. 삼양(三陽)은 오민 안판관 집으로 네놀리자. 신촌(新村)은 오민 고만호 집으로 네놀리자. 김동지 집으로 네놀리자. 조천(朝天)은 오민 김철방 집으로 네놀리자. 함덕(咸德)은 오민 한구장 집으로 네놀리자. 북촌(北村)은 가민 이만경 집으로 네놀리자. 동복(東福)은 오민 심만호 집으로 네놀리자. 김녕(金寧)은 오민 황부제 집으로 네놀리자. 월정(月汀)은 가민 한동지 집으로 네놀리자. 행원(杏原) 가민 이판관 집으로 네놀리자. 한동(漢東)은 가민 허자수 집으로 네놀리자. 팽대(坪垔)에 가민~ 고만호 집으로 네놀리자. 부데각 하르방 집으로 네놀리자. 상세화린(上細花里-ㄴ) 가민 정찰방 집으로 네놀리자. 하둔(下道-ㄴ) 가민 김장수 집으로 네놀리자. 종달(終達)리 김만호(金萬戶) 벼슬⁷⁸⁾ 허던 집으로 네놀리자.

글로 저레는⁷⁹⁾ 심방은 덩기명 아니 헤어난 모르겠습네다. <우리 이씨 선생님 산 때 일로 허민 신천리, 하천리, 표선까지 다 헛인디, 그거는 헤봤자 다 모르는 일이고, 나 이디까지만 헛습네다.>

75) 도청곳: 마을 곳곳을 돌며 액을 없애고 안녕을 기원하는 곳.

76) 개인집은: 개인집은.

77) 목은성: 제주도 삼도동의 지명(地名).

78) 벼슬: 벼슬.

79) 글로 저레는: 그리로 저리는.